혜원 스님의 입적에 불교계 안팎의 대표자들은 애도의 메시지를 보냈다. 생전 혜원 스님과의 친분과 함께 그 덕화와 가르침을 높게 평가한 조사가 눈길을 끌었다. 수많은 대중들은 혜원 스님의 평소 모습을 떠올리며 조사 한구절 한구절 마다 눈시울을 붉혔다.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대중들은 스님이 평소 남긴 가르침에 따라 '주인공'으로 거듭나길 다짐했다. 〈편집자 주〉



화합의 족적 남긴 시대의 스승으로 기억

법 어

사바 연연 말고 열반락 이루소서

우리 다 같이 혜원 스님의 영법을 위해서 합장 하겠습니다. 혜원 스님께서는 사바세계에 연연하지 마시고 왕생극락 하시어 열반락을 이루소서.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 근기 따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좋은 인연은 복이라 하고 나쁜 인연은 화라고 합니다. 초년에 부모를 잘 만나면 부모복이 있다고 하고, 말년에 자식을 잘 두면 자식복이 있다 하고, 중간에 처를 잘 만나면 처복이 있다, 남편 잘 만나면 남편복이 있다 그래요. 가는 데 마다 돈이 생기면 재복이 많다, 매일 일만 생기면 일복이 많다, 어떤 사람은 매일 얻어맞고 매복이 많아서 그렇다고도 하죠.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죽어서 가는 명복이 있어야 됩니다.

명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지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 부처님의 근본정신이 자비보시인데 자비심으로 보시를 많이 해야 복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는 계율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게 복을 짓는 것이라고 하는데 짓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받아야 하고, 받으려면 인욕정진을 해야 합니다. 또 받은 복을 누릴 줄도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지혜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완수하면 복을 짓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좀 더 크게 복을 지으려고 하면 10바라밀을 해야 하고요. 10바라밀은 방편이 있어야 합니다.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잘하는, 남이 따를 수 없는 방편 ·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력도 커야하고, 힘도 있어야 해요. 법력이 있고 도력이 있어야지 이런 힘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6바라밀의 지혜는 관조바라밀이라고 하고, 10바라밀의 지혜는 실상반야라고 합니다. 둘은 다르지만 어쨌든 지혜가 있어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지혜, 중지는 화합이라고 합니다. 화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합니다. 우리 한마음선원이 부처님 근본정신을 구현하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기 때문에 오늘날 크게 빛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대행 스님의 뜻을 받들어 실천한 혜원 스님처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자연스러운 것이 잘사는 것입니다. 삼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잘 사는 법이 팔정도, 복스럽게 잘사는 법이 6바라밀 · 10바라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잘 사는 법인 육화경행(六和敬行)이 있죠. 한마음선원의 육화문중이 이를 잘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인연법, 인과법, 연기법 모두 결국 화합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죠. 그러려면 남의 허물을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자기 일만 해야 해요. 우리 모두 부처님 같이 되는 것이 목적이니 모쪼록 여러분들이 혜원 스님처럼 훌륭한 족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암도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추도사

누구나 붓다로 섬긴 下心의 표상

연자당(蓮子堂) 혜원(慧圓) 스님. 8월의 푸른 산과 하늘 사이로 길 없는 길을 지나 이제 열반언덕에 이르시렵니까? 가고 옴이 따로 없다 하였지만, 원적에 드시니 바람조차 머물러 먹먹한 심정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본래 한 마음 그 자리는 생멸(生滅)이 다한 열반의 자리요, 한 마음 또한 체(體)가 없기에 거래가 자유롭고 활달하기만 합니다. 이제 생멸이 다한 가운데 고요한 열반락(涅槃樂)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모든 것을 맡기면 아무 걱정이 없다'는 평소의 말씀은 이미 모두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다 맡기고 가셨으니 떠난 것도 아니요 보낸 것도 아니니, 후학과 불자 모두는 항상 스님의 품에서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수행자로서 보여준 모든 솔선(率先)과 수범(垂範)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승님의 깊은 은덕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유일한 길로 삼으셨기에, 스님의 지나온 걸음걸음이 대중 모두에게는 다시 큰 스승을 만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일생을 '참 나'를 찾아 대화를 나누셨던 정진의 모습 그대로, 어린이로부터 학생, 청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의 주인공으로 여기고 아끼셨으니 이 또한 불자 모두의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붓다, 청소년 붓다, 청년 붓다, 합창하는 붓다, 법형제 붓다, 봉사하는 붓다 모두가 활기찼습니다. 향기로웠습니다. 모두를 본래 붓다로 여기고 붓다처럼 섬기고 존중하면서 진정한 행복과 안락은 그대로 마음속에 있음을 일깨웠습니다.

혜원 스님, 일생을 바쁘게 살아왔으나 마음은 조금도 움직임이 없으셨으니, 현시대의 불자들이 그 가르침을 표상(表象)으로 삼습니다. '몸은 심부름꾼이자 참 나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으라'는 말씀처럼 후학들은 정진의 삶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아무런 걱정과 시름도 없는 한마음 상적광토(常寂光土)로 가셨사오니, 적멸의 기쁨 누리시다가 오래 머무시지 마시고, 속히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마음 주인공이 되었는지 경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를 이어가는 미래의 종교로 발전하고, 한마음 세상이 널리 펼쳐지며, 우리 모두 주인공답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하소서.



자승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영결사

마음공부 선풍 중심 역할

무더위가 치성했던 여름의 끝에서 스님의 원적을 접하고 황망함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전국비구니회의 부회장을 맡으신 때가 오래지 않은 일이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스님의 부음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제법이 공하고 제행이 무상하다는 크나큰 진리의 흐름 속에 우리 모두가 서 있지만 스님 생전에 걸어오신 길을 생각해 봄에 불교계의 크나큰 동력을 잃은 아픔이 너무나 큽니다.

한국 불교계에서 한마음선원이 일으킨 마음공부의 선풍은 단연 앞서가는 교화로 불교계를 선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거사들과 젊은 불자들의 신행 활동은 종교인들이 줄어드는 현 시대에 타 종교에서조차 모범이 되었으며 그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빠짐없이 지원을 베풀고 배려해주신 스님의 뜻이 있었으니 가신 후에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스님은 은사스님이신 대행선사의 맏상좌로서 백오십여 명이나 되는 사제 스님들을 배출해 내는 오랜 기간동안 쉼 없이 그들의 수행 정진을 외호해 오느라 자신의 영달을 생각해본 적이 없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척박한 외국에서의 포교도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스물 다섯 지역에 지원을 내는 동안 온갖 신고를 겪은 그 과정은 어떠하셨으며 그 어려움은 어떠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내세움도 없이 걸어간 스님의 묵묵한 기상은 남은 이들의 가슴에 보살행을 실천한 모범이 되어주시니 그 빈 자리가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 스님 법체는 계시지 않지만 스님이 수호해오신 이 장엄한 도량은 수많은 공부인들을 배출해 내는 정사가 되어 미래 공부인들에게 영원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연자당 혜원스님! 속환사바 하시어 한 줄기 빛으로 다시 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육문 스님(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조 사

달빛처럼 맑고 깨끗하신 분

연자당 혜원스님! 이렇게 가시다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눈앞이 캄캄합니다.

연꽃같이 맑고 달빛처럼 은은하신 혜원스님! 위로는 은사 대행스님의 날카로운 채찍을 받으며 찰나도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정진하시며, 아래로는 사제들을 보살핌이 맏형으로서의 애정으로 감싸며 동체대비의 구도보살의 화신으로 오늘날 한마음선원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온 연자당 혜원 스님!

국내와 해외의 지원이 스님의 땀방울 베이지 않은 곳 없고 스님의 손길 스치지 않은 곳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스승의 뜻을 받들고 아우들의 바른 신의를 보살펴주고 다독거려주며 법형제들의 신념과 신행을 통한 우의를 다지며 불법의 중흥과 자비보살의 생활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오로지 앞만 보고 살아오신 연자당 혜원 스님!

당신의 건강을 백분의 일이라도 살피셨더라면 이렇게 급하게 가시지는 않았을 것을….

연자당 혜원 스님! 큰 스승님의 뜻을 받들어 가꾸어 온 과학원, 문화원, 합창단, 학생회, 청년회, 어린이회, 한마음 법형제들을 이렇게 무심히 버려두고 홀홀히 떠나시는 것입니까. 스님께서는 한마음선원을 넘어 종단의 교육 포교 사회에도 지대한 공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스님! 혜원스님! 이미 원적에 드신 스님을 붙잡을 수도 없고 오열한다고 돌아오실 수도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헌 옷 던져버리고 새 옷 갈아입으시고 속히 오셔서 다시 법형제 되어 못 다한 불사 원만히 이루는 원력 다 하시기 바랍니다.

흰구름 청산을 지나가도
그대로 청산이요.
한마음 밝은 지혜 달빛 되어 비추는데
안양천 연꽃 향기 태허공이 충만하리



법산 스님(동국대 명예교수)

조 사

한국불교 포교 밑거름 돼주셔

연자당 혜원 스님의 원적을 가슴깊이 애도합니다. 1990년부터 한국 도심불교의 중심을 이루는 한마음선원의 주지와 더불어 제 13대 중앙종회의원, 제 10대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을 역임하신 스님께서는 모든 불자들의 높으신 스승이자 동기셨습니다. 스님께서 평생을 바쳐 고민하시고 끊임없이 진행 해오신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과 생활 속 수행방법 등 실제로 많은 불자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한발 더 앞선 포교를 통해 한국 불교의 큰 밑거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스님의 원적을 가슴깊이 애도하며 한없는 그리움으로 스님의 공덕을 다함께 기리고자 합니다. 가시는 길 부디 편하시길 두 손 모아 분향 올립니다.



이기흥 조계종 전국 · 중앙신도회장

'자비심' 지역사회 등불로 남아

오늘 연자당 혜원 스님의 원적을 60만 안양 시민과 함께 가슴 깊이 애도합니다. 지난 4월 뵈었을 때 온화하고 인자하신 미소가 아직도 생생한데, 갑작스런 비보를 접하게 되니 그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스님은 한국불교의 기둥이자 우리 안양시의 진정한 등불이셨습니다. 사바중생들의 갈 길을 비춰주시고 지역사회를 환하게 비춰주셨던 아름다운 발자취는 우리 안양 시민 모두의 마음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스님을 그리워하고 애타는 마음을, 다음의 인연으로 기억하고자 합니다. 보내드리는 심정, 참으로 무겁고 애통하지만 스님의 고결한 뜻이 지역사회에서 자비와 선으로 이어지고 60만 시민 모두가 더 행복한 안양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필운 안양 시장



오직 한 길만을 걸어오신 스님의 뜻 받들어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와 상대를 나누지 않으며 실천하는 정진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한마음선원 신도회